

노인의 평생교육활동참여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와 자원봉사활동의 매개검증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of Lifelong Education Activities on the Self -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and Volunteer Activity-

안화순, 문재우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wasoon Ahn(paper004@naver.com), Jaewoo Moon(mjw1229@naver.com)

요약

본 연구 목적은 노인의 평생교육활동참여가 자아통합감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고 삶의 만족도와 자원봉사활동이 매개하여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일반노인대상으로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의 평생교육기관에 참여하는 300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AMOS 22.0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응용하였고, 매개경로의 유의수준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으로 Bootstrap 분석과 추가적으로 Sobel test 검증 방식을 사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WIN 22.0,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의 평생교육활동 참여가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주었으며, 삶의 만족도와 자원봉사활동은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자아 통합감 | 평생교육활동참여 | 삶의 만족도 | 자원봉사활동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participation of lifelong learning activities of the elderly is a part of the self -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12 ite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5 items of lifelong education, 6 items of volunteer activity, 15 items of life satisfaction, and 10 items of self - integr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0 elderly people aged 60 or older living in Seoul, Gyeonggi - do, and Incheon, and participated in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elderly welfare center, elderly university, and ward. As a method of analysi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AMOS 22.0 was applied. The results obtained by applying th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tested and the reliability of the items was tested. The reliability of the items, predictability, accuracy, and validity were analyzed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econd, the research hypothesis was verified by verifying the fit of measurement variables through participation factor of lifelong education, self - integration, life satisfaction, and voluntary servic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WIN 22.0 and Amos 22.0 programs.

■ keyword : | Self-Consciousness | Participation in Education Activities | Life Satisfaction | Volunteer Activity |

I. 서론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서 진입하여 노인의 삶의 질이 점점 낮아지며 행복지수도 세계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인들의 현재의 생활상은 가난, 질병,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노인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노인의 행복은 외적 자원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내적 자원 역시 중요하다. 노인의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는 자아통합감이다. Erikson은 노년기에 달성해야 할 과업으로 자아통합감을 지적한 바 있다[1].

자아통합감이 증진될 수 있는 노인은 인생주기를 성공적으로 적응하였기 때문에 사회 심리적으로 비교적 성숙되고 원숙한 자세와 인격을 갖추고, 자신 주변에 있는 여러 세대 간의 조화 속에서 자율적으로 살아온 인생을 수용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형성한다[2].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 성공적 노화 등의 연구에서 자아통합감은 상징적으로 성공적 노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아통합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평생교육활동참여나 자원봉사활동참여를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노인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아통합감이 형성되면 노인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노인 평생교육은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과 노화와에 대해 가르치는 동시에 노인을 위한, 노인에 관한, 노인에 의한 노인 교육으로 볼 수 있다[3]. 노인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의 한 영역으로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전 생애에 걸쳐 수직적 차원의 교육과 개인 및 사회 전체의 교육인 수평적 차원의 통합을 말한다. 이는 지식과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평생에 걸친 필수적인 학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4].

자아통합감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개인적 특성 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진

강상태, 노인돌봄 경험과 영적 안녕[5], 고독감, 사회적 지지, 사회적 활동[6][7], 자기효능감과 영성[7][8], 가족 관계와 자아실현[9][10], 상실감과 우울[11]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자아통합감 영향 요인으로 개인적 측면을 고찰하기 보다는 평생교육활동과 자아봉사활동의 영향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적 측면에서 자아통합감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노인의 자아통합감은 성공적 노후생활과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필수조건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인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아통합감은 노후생활을 역동적으로 유도하는 통합적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이를 함양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년기에 달성해야 하는 과업인 자아통합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요인 중 평생교육활동 참여를 파악하고 이 요인들이 자아통합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주요변수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와 자원봉사활동 통해서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노년기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자아통합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론과 실무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첫째, 조사대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평생교육참여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셋째, 노인의 평생교육활동 참여와 자아통합감 간에 삶의 만족도와 자원봉사활동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넷째, 노인의 삶의 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자아통합감, 평생교육활동 관계를 파악한다.

II. 관련 연구

Lendgrand는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을 “개인

이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 걸친 수직적 차원의 교육과 학교 및 사회전체의 수평적 교육의 통합”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고,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 동안에 걸쳐 지속적인 교육의 연장이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활동으로서,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계속 교육 참여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인간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하며 급변하는 현대생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창조적으로 개척해 갈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말하며, 타인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인간화 교육이다[12].

평생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Maslow의 사회적 욕구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 관계 욕구로 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욕구를 증진시키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경청을 잘해야 하며 대화라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애정을 나누는 것이 필수적 조건이다. 또한 평생교육과 관련된 Maslow의 욕구는 자아실현이다. 즉, 미완성의 존재인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13].

노인의 자아통합감은 ‘지나온 삶에 대한 가치부여’와 인생의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포괄하며[14] 개인의 과거 삶에 대한 인정과 주관적인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15][16]. 따라서 자아통합감을 지닌 노인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 삶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인지하게 되고, 현재 개인의 직면하는 생활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17] 심리적 만족감과 삶의 만족감이 높다. 노인의 삶의 만족이란 한 개인의 살아온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를 의미한다[18].

자원봉사활동기간, 시간, 참여정도, 참여만족도 중에서 일부가 자아통합감에 영향이 없다는 연구도 있지만[14], 많은 연구는 노년기의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3][19-21].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의 경우 우울증이 감소하고 생활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연구를 볼 때

[22] 노인이 평생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 삶의 만족도와 자아통합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거주 노인지역 전역의 만 60세 이상의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모집단의 표본은 총 320부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310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를 제외한 총 300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3월 15일부터 6월 30일 기간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 입력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상치와 정규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SPSS WIN. 22.0 &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설문지 내용은 5항목, 48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체계적 무작위표집 표본추출 확률 표집방법으로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해보았다. 코딩(recoding)과 결측치 작업(data cleaning)을 완료한 후, 빈도분석 및 기술 분석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L 그리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인 특성(12 문항), 평생교육활동참여(5문항), 자아통합감(10문항), 자원봉사활동(6문항), 삶의 만족도(15문항)로 5개 항목 총 4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측정도구

2.1 독립변수: 평생교육참여

평생교육활동참여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척도지표를 적용하여 측정되었다.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과정에 자기 계발교육유형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등, 평생교육 참여분야로서 문화예술, 어학, 건강과 스포츠, 자기 계발과 취미, 컴퓨터, 문해 창작 과육과정 분야로 구분하여 총 5개 문항으로 재구성 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a 값은 .940로 나타났다.

2.2 증속변수: 자아통합감

자아통합감은 Diener, Emmons(1984)이 개발하고 차경호(1999)가 번안한 자아통합감 만족 척도(SWLS :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사용하였다. 문항들은 긍정적인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고,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문항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939였다.

2.3 매개변수 : 삶의 만족도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Neugarten 등(1961)에 의해 처음 개발된 LSI-A를 기반으로 Wood 등(1969)이 작성한 LSI-Z를 서경희(1983)에 의해 번역 수정된 13문항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예비조사를 통하여 15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SI-Z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 값은 .70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 값은 .821이었다.

2.4 매개변인 :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척도는 Francies(1982)가 개발하고 권지성(1999)이 번역한 것을 이용한 문인숙(2011)의 21문항의 원척도를 가지고 6개의 문항을 설문지로 재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이 높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 값은 .7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원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ronbach’s *a* 값이 .7 이상).

IV.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146명(48.7%), 여성이 152명(51.3%)으로 여자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평생교육 활동노인에 있어서는 여성 노인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결혼여부는 기혼자가 2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은 60-69세 142명(47.3%), 70-79세 84명(28.0%), 80세 이상 74명(24.70)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3명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 137명(47.5%)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형태는 자가 소유자가 260명으로 86.7%를 차지했다.

학력은 대졸자 이상이 76명으로 전체 25.3%이며, 무학자가 81명으로 27%로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자가 140명으로 46.7%이며, 회사원 58명(19.3%) 자영업 49명(16.3%)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으로는 월 100만원 이하가 116명(38.7%)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기독교 137명(45.7%) 불교 88명(29.3%), 천주교 47명(15.7%) 순이었다. 입원한 경력이 없다는 응답자가 176명(58.7%)으로 가장 많았다.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 자료의 정규성검정은 일변량정규성과 다변량정규성 모두 검토하였으며 정규성 항목 중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다[표 1].

표 1. 기술통계 및 정규성 분석 결과분석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교육활동참여	1.500	4.167	2.790	0.497	0.200	0.141	0.030	0.281
자원봉사활동	1.417	4.333	2.657	0.578	0.390	0.141	0.375	0.281
삶의 만족도	1.733	4.200	2.812	0.467	0.355	0.141	0.058	0.281
자아통합감	1.722	3.889	2.840	0.394	0.098	0.141	0.064	0.281

응답자료 정규성 검토결과 일변량 정규성 가정에는 왜도의 경우에 .098~.390, 첨도의 경우에 0.030~0.375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통합감과 교육활동참여 여부는 .267, 자원봉사활동 .267, 삶의 만족도 r=.712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표 2. 관련변수의 상관관계

구분	교육활동참여	자원봉사활동	삶의 만족도	자아 통합감
교육활동 참여	1			
자원봉사 활동	.155**	1		
삶의 만족도	.246***	.246***	1	
자아통합감	.267***	.267***	.712***	1

* p<.05, ** p<.01, *** p<.001

3. 측정모형 및 경쟁모형의 비교 검증

구조 방정식 모델(SEM)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기법으로서 계수 추정을 위하여 최대우도추정치법을 사용하였다. 수정지수의 공변량, 잔차를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차항 등 연결하여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수정모형의 경우에 적합도는 NFI는 .919, CFI는 .957, GFI는 .956, AGFI는 .920, TLI는 .935, RMSEA는 .057 대부분 양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표 2].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절대 적합도 지수							상대 적합도 지수			
	χ^2	df(p)	Q	GFI	RMR	RMSEA	AGFI	TLI	NFI	CFI	IFI
초기 모형	214.76	(p<.001)	4,38	.895	.046	.106	.833	.773	.796	.832	.834
최종 모형	84.932	(p<.001)	1,975	.956	.023	.057	.920	.935	.919	.957	.958
수용 수준	계산된 χ^2 값과 임계치를 비교		10미만 우수	.90 이상 우수	.05 이하 우수	.10 이하 .05 매우 적합	.90 이상 우수	.90 이상 우수	.90 이상 우수	.90 이상 우수	.90 이상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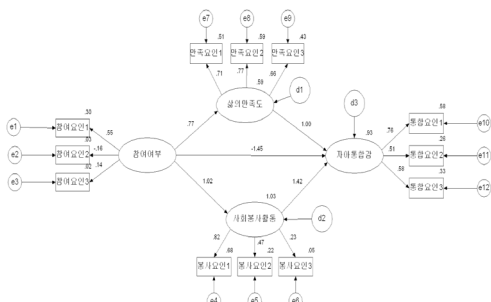


그림 1. 구조모형

평생 교육활동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beta=.833$ 으로 나타나,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5$). 활동참여여부가 사회봉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beta=.927$ 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삶의 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beta=.778$ 로 나타나,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1$). 자원봉사 활동이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통합감이 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beta=.761$ 로 나타나,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참여여부가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은 채택되었다[표 4].

표 4.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	β	B	S.E	t	P
삶의 만족도 ← 교육활동 참여	.833	2.855	1.444	1.977*	.048
자원봉사 참여 ← 교육활동 참여	.927	1.064	.698	1.524	.128
자아 통합감 ← 삶의 만족도	.778	.897	.287	3.126**	.002
자아 통합감 ← 자원봉사 활동	-.593	-2.044	3.127	-.653	.513
자아 통합감 ← 교육활동 참여	.761	3.010	4.412	4.682***	.001

* p<.05, ** p<.01, *** p<.001

4. 매개효과 검증

삶의 만족도와 자원봉사활동의 매개효과 검증은 구조방정식 AMOS 방법과 SPSS Win 22.0로 검증하였다.

표 5. 매개효과 검증

구분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자원봉사 활동	삶의 만족도	자아 통합감	자원봉사 활동	삶의 만족도	자아 통합감	자아 통합감
교육활동 참여	.927 (.042)	.833* (.048)	.858*** (.001)	.927 (.042)	.833* (.048)	.761*** (.001)	.098* (.045)
자원봉사 활동			-.593 (.513)			-.593 (.513)	
삶의 만족도			.778** (.002)			.778** (.002)	

*p < .05, **p < .01, ***p < .001.

간접효과 및 직접효과에 대한 유의확률을 구하기 위

해 유의검증 방법은 Bootstrap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obel 검증 중 Goodman 구조방정식 검증 방식에 따라 계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육활동참여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와 사회봉사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Bootstrap 분석 결과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098로 나타나, 유의수준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활동참여여부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와 사회봉사활동의 매개 검증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노인인구의 증가는 우리가 가보지 않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이다. 국가나 사회의 지원은 의해 노후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으며 불가능하기도 한다. 에릭슨이 강조하고 있는 노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감은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한 바람직한 목표로 자리잡고 있다.

노인의 자아통합감은 전생애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자아통합감을 지닌 노인은 과거와 현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죽음을 수용한다. 죽음조차도 지속적인 삶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자아통합감은 삶의 지혜를 제공하는데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노인의 평생교육활동 참여가 자아통합감에 통계적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들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아통합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평생교육과목의 유형 또한 취미 및 자기계발, 교육 문화 순으로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대상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에 대한 활동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노인은 가능한 활동적이어야 하며, 활동이 노인의 인격, 정신건강, 삶의 만족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활동이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23][24]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자아통합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25][26]와 상반되게,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아통합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교육 참여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노인의 평생교육활동참여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노인교육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의 생성감과 자아통합감을 비교하거나[27], 노인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특성(참여동기, 활동내용, 보상유무, 자원봉사담당자와의 관계, 동료자원봉사자와의 관계, 대상자 만족도, 동기충족도, 활동부합성)에 따라 자아통합감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단편적 연구[28]가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노후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생교육활동참여와 자원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까지 영향요인으로 보아 이를 분석하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에 비해 노인의 자아통합감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활동 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명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첫째, 노인 평생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의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들의 연장된 평균수명과 고학력 노인들의 증가는 고령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기 위한 예방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아통합감을 높이는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나 노인자살, 노후 경제활동의 약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활동을 통한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은 중요한 의미를 진니다고 하겠다[29].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의 평생교육참여

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좀 더 다양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잠재력 능력을 발휘하여 평생교육참여가 자아통합감에 이르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 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노년기의 심리적 만족감과 생활만족도와 자아통합감이 높다는 연구[30][31]는 이를 지지해주고 있다.

셋째, 현재 노인들의 자원봉사참여율은 매우 낮다.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노년기에 이르러 갑자기 시작되기 어려우므로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년기로 진입하기 이전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갖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이 전생애를 통한 자원봉사로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넷째, 노인의 자아통합감은 매우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정책적, 실천적 접근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주어진 환경보다는 내적인 성장을 통해 형성된 자아통합감은 현재의 상황 안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진취적인 자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32]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서울시, 경기 등 한정된 장소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평생교육 참여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 규명된 바, 이를 근거로 교육 환경이나 교육내용에 따른 차이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E. H. Erickson,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1997.

- [2] S. O. Chang, E. S. Kong, K. B. Kim, N. C. Kim, J. H. Kim, C. C. Kim, H. K. Kim, M. S. Song, S. Y. Ahn, K. J. Lee, Y. W. Lee, S. J. Chon, N. O. Chl, M. O. Cho, and K. S. Choi, "The concept analysis of ego-integrity in the elderly," *J Korean Acad Nurs*, Vol.34, No.7, pp.1172-1183, 2004.
- [3] 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노인평생교육 참여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제32권, 제3호, pp.801-817, 2012.
- [4] P. Lendgrand, *An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Paris*, UNESCO Press. 1975.
- [5] 홍미화, 한수정,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영향 미치는 요인," *AJMAHS*, 제6권, 제2호, pp.149-157, 2016.
- [6] 정현정, 윤숙희, "독거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1권, 제4호, pp.499-508, 2015.
- [7] 정일영,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권2호, pp.346-365, 2017.
- [8] 신동민, "노인의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통권 제57권, pp.261-288, 2012.
- [9] 김고은, 신은주,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자아실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71권, 제3호, pp.109-136, 2016.
- [10] 양정훈, "근거이론을 통한 노인의 자아통합감 연구 :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pp.23-48, 2015.
- [11] 오지희, 김종남, "노인의 상실감, 응집감 및 우울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2권, 제3호, pp.687-710, 2017.
- [12] 장진호,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대은, 1985.
- [13] 최은수, 기영화, 최성우 외, *평생교육론*, 학지사, 2010.
- [14] 이금룡, 박상욱, 유은경, "노년기 생성감과 생활만

족도와 관계에서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33권, 제2호, pp.365-379, 2013.

[15] 김혜령, “일 도시지역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 :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32권, 제1호, pp.223-236, 2012.

[16] 조영구, 이재문, 이은모, 노인복지론, 정민사, 2016.

[17] R. J. Haviguurst,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y, Vol.111, pp.67-76, 1968.

[18] 서용숙, 노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자아통합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9] 이안나, 조성숙, “노인의 자원봉사활동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754-767, 2013.

[20] 한정란, 노인교육의 이해, 학지사, 2005.

[21] R. J. Haviguurs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Let's learn about aging : a book of readings, J. R. Barry and C. R. Wingrove(eds.), New York, 1977.

[22] 김성국, 여성 재가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우울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3] 장혜경, 손정남, 차보경,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제13권, 제1호, pp.64-71, 2004.

[24] 김정순,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25] 이금주, 자원봉사활동이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 원주시 노인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6] 류정란, 노인자원봉사활동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7] 김향숙, 한정란, “노인교육 참여가 생생감과 자

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노년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21-37, 2016.

[28] 정소영, 노인자원봉사자의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9] 광미정, 김태동,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8권, 제1호, pp.45-75, 2015.

[30] 이유찬, 한혜원, “노년기 여가참여형태와 삶의 질 인지와의 관계,” 한국체육학, 제40권, 제3호, pp.309-319, 2001.

[31] 권미혜, 노년기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32] 김고은, 신은주,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자아실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71권, 제3호, pp.109-136, 2016.

저 자 소 개

안 화 순(Hwasoon Ahn)

정회원



- 2014년 2월 :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 박사과정

<관심분야> : 노인복지

문 재 우(Jaewoo Moon)

정회원



- 1995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우울, 자살, 건강행태